

Esther 4 강 (부림절의 기원/ 8:1-10:3)

1. 유다인의 승리/ 8:1-9:19

1) 새로 내린 조서

에스더서의 스토리는 아각 사람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이 어떻게 유다 여인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 반전되는 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 하만이 일단 제거되자 궁정에는 평화가 깃들었으며 모르드개는 하만이 누렸던 권세를 얻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이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었으며 아홉달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8:9/3:13 비교).

-제비를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3:7). 왜냐하면 왕이 전체 제국에 새로운 조서를 내릴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한번 더 왕에게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영을 내릴 것을 간구합니다.

- 바사의 왕은 한번 내린 조서를 철회할 수 없었으며 하만의 자리에 앉은 모르도개(8:15)를 통해 그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영을 내리게 했습니다. 새로운 조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유대인의 원수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8:11:13)

2) 생명의 성령의 법

-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었습니다(롬 8:1-12).

- 8:10-14 절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예화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서기관들은 서둘러 조서를 써서 왕국 곳곳에까지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조될 것입니다.

-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고용되었던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은 일군을 사용하심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믿었을때 이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 추억의 잔치(8-10 장)

-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8:17)

- 아달월 13 일이 되었을 때(9 장), 유대인들은 그들의 편에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수 많은 유대인의 적들이 살해되었으며, 하만과 열 아들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9:6-10).

-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는 기스의 후손(사울)과 아말렉 왕(아각)이 다시 한 번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그들의 적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에 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에스더 기자는 이 점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에 9:10,15,16). 아마도 기자는 모르드개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말렉인들에게서 탈취하기에 급급했던 사울과 똑같은 실수(삼상 15:9-19)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 저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상, 이방의 권력에 비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가 유대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반유대주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유대인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4:14), 하나님의 선택 목적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이 나라는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부림절의 제정/ 9:20-10:3

그 달 14 일에 유대인들은 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모르드개는 이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달월의 14, 15 일을 축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부림절로 지켜옵니다.

1) 부림절 부록 (9:20-31)

- 에스더서는 이 민족의 가장 큰 축제일들 중의 하나인 부림절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림"은 '부르'의 복수인데 "제비뽑기"라는 뜻이며 하만이 유대인을 살육할 날짜를 "제비를 던져" 결정했다(3:7)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9:26-31).

- 부림절은 유대 달력의 마지막 달(우리의 2-3 월) 14-15 일에 열렸고, 13 일에는 에스더의 금식을 기억하여 금식하는 행사가 실행되었습니다(4:16). 이 날 저녁에 이들은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공식적으로 읽습니다.

-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마루를 구르고 야유하며 "그의 이름이 지워질지어다"라고 외칩니다. 다음 날 이들은 다시금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며 율법을 읽습니다. 그날의 남은 시간과 다음 날은 큰 기쁨과 잔치와 선물을 주는 일로 보냅니다.

- 이렇게 함으로 에스더서 기자는 부림절이 단순한 세속적인 절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절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 구약의 인준은 없으나 이 절기는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은혜와 능력의 본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2) 유대인의 안위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제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10:3)

- 여기에서 "안위하였더라"는 말은 "살롬을 말하였다"는 말이다. 이것은 에스더서의 주제인 구원이 단순한 위협의 제거가 아니라, "살롬", 즉 완벽한 상태로의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행동한 믿음의 사람 모르드개의 승진과 번영을 기록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과 섭리에 대한 놀라운 간증입니다.

로마서 8 장 28 절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입증됩니다.

3. 그들의 스토리

- 에스더서는 유대 백성의 문제 즉 반셈족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3:8 과 같은 하만의 고소는 인류 역사에 반복되어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한 고소의 전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나치스가 유대인 600 만 명의 학살 근거를 반유다주의라는 신학적 이유에서 찾았음은 이러한 경고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특정 민족으로서 유대인을 존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기독교 성경의 일부로서 교회가 샘족이나 유다민족을 반대하는 일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스토리

- 에스더서에 선택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모르드개,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보존한 이유는 명백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2:5-6)와 율법(3:8)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의 보존과 구원이라는 주제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여 신약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나오는 언약들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 이후의 하나님 백성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스토리를 자신의 스토리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의 계획의 성공은, 페르시아와 팔레스타인에 살던 모든 유대인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살롬을 주심을 보여주는 에스더서는, 구원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